

번호: OP-I-005					
제 목	소아비만과 관련된 개인적/환경적 요인들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Factors that are Related to Childhood Obesity				
저 자 및 소 속	강희태1), 주영수1), 권영준1), 임형준1), 이화평1), 김정민1) 1)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산업의학과 Heetae Kang1), Youngsu Ju1), Youngjun Kwon1), Hyoungjune Im1), Hwapyung Lee1), Jeongmin Kim1) 1) Hallym University Sacred Heart Hospital, Department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분 야	역 학 [건강 위험요인]	발 표 자	강희태 전공의	발 표 형 식	구연
목적: 소아비만의 상당수가 성인비만으로 이어지며, 성인비만은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등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개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들이 소아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시행하였다.					
방법: 군포시 22개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생 4043명(남학생 2125명, 여학생 1918명)에 대하여 2005년 4월 18일부터 5월 25일까지 신체 측정과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신체 측정은 신장계, 체성분분석기 등을 이용하여 신장, 체중, 체지방량 등을 측정하였다. 설문 조사는 자기기입식으로 어린이가 작성하는 문항(건강 및 비만에 대한 인식도, 운동, TV 시청, 컴퓨터 이용, 아침 식사, 과일 섭취 등)과 학부모가 작성하는 문항(아이에 대한 내용, 뇌심혈관질환 및 위험요인의 가족력, 학부모에 대한 정보, 주거환경 및 가족환경)으로 이루어졌다. 체중이상은 연령에 따른 체질량지수(BMI)가 85% 이상인 경우로 정하였으며, SAS 8.01을 이용하여 단변량 분석하였다(다변량 분석은 추후 예정).					
결과: 체중이상은 총 1016명, 25.13%(남학생 27.48%, 여학생 22.52%)로 나타났다. 체중이상이 있는 경우 자신들이 뚱뚱하다고는 생각하나($p<0.0001$), 자신의 건강에 대한 생각은 보통 체형과 큰 차이가 없었다($p=0.8036$). 숨이 가쁠 정도의 운동은 더 자주 하고 있었으나($p=0.0186$), TV 시청 시간이 더 길고($p=0.0003$), 컴퓨터 이용 시간도 더 길었으며($p<0.0001$), 아침 식사를 먹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고($p=0.0003$), 과일을 더 적게 먹었으며($p=0.0119$), 수면시간이 부족하였다($p<0.0001$). 출생시 체중이 더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었으며($p=0.0010$), 고혈압($p=0.0379$)과 당뇨병($p=0.0260$)의 가족력이 더 높았다. 부모는 아이가 비만임을 인식하고($p<0.0001$), 아이의 체격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다($p<0.0001$). 아버지가 비만한 경우와 어머니가 비만한 경우 모두 아이가 체중이상인 경우가 더 많았다($p<0.0001$). 체중이상이 있는 경우 아버지의 학력이 더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p=0.0004$),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고($p=0.0037$),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p=0.0080$), 간접흡연을 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고($p=0.0159$), 부모 이외의 사람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가 더 많았다($p=0.0424$).					
결론: 본 연구 결과 초등학교 5학년의 1/4 정도가 체중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비만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소아비만이 개인 생활 습관 뿐만 아니라 아이가 양육되고 있는 다양한 환경 및 조건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소아비만관리가 종점적으로 필요한 집단이 누구이고, 소아비만과 연관된 요인들이 무엇인지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집단을 포함하는 소아비만 연구가 지속되어, 비용-효과적인 소아비만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